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IN THE DARK SPACES
가제 : 시커먼 우주에서 일어난 일
저자 : Cally Black
출판사: Hardie Grant Egmont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하디 그랜트 에그몽 출판사가 매년 수여하는 '앰퍼샌드 상' *YA* 부문 *2015*년 당선작**
*** 올해 *8*월, 호주 멜버른 작가 페스티벌 소개작**
*** 전 세계적인 *YA* 판타지 화제작 『절대 놓을 수 없는 칼』과 인기 *TV* 시리즈 '홈랜드'가 결합된 듯한 인상적인 *SF* 스릴러**

지구라는 곳이 있는 줄은 알지만 지구에 관한 기억이 별로 없고,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지구인 소녀 타마라. 열네 살이 된 타마라는 세상에 유일한 가족인 라젤라 이모와 몇 개월 전에 이모가 낳은 귀여운 사촌동생 타미키와 함께 우주 행성을 오가며 화물을 배달하는 대형 우주선에 숨어 살고 있다. 정식으로 취직할 수 있는 열여섯 살이 되면 요리사인 라젤라 이모와 함께 주방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디오스 행성에 정착하는 것이 타마라의 꿈이었건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 계획은 외계생명체의 등장으로 모두 무너졌다. 유난히 가늘고 긴 다리, 망토를 걸친 듯 어깨에 두툼하게 매달린 날개, 까만 헬멧, 창백한 얼굴을 가진 까마귀 인간들이 스타위버 화물우주선을 급습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선원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딱 한 사람, 타마라만 예외였다.

헬륨과 인을 가득 싣고 디오스를 출발한 스타위버에 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러 행성에서 광물을 캐기 위해 찾아오는 디오스 행성은 라젤라 이모가 타미키를 낳은 후 그냥 정착하려고 마음 먹었던 곳이다. 이모는 작은 식료품가게를 열고 타마라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지만, 거친 광부들과 우주선으로 오가는 선원들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고 정해진 물건 값을 다 치르지 않고 빼앗아 가는 일도 허다했다. 아직 어린 타마라가 장사판에서 구박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모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우주선에 요리사로 취직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선원 누구도 가족을 배에 태울 수 없다는 엄격한 규칙이었다.

타마라 자신도 이미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 우주선에서 자랐지만 또 다시 우주 떠돌이가 되어

사는 것은, 그것도 말도 크게 하지 못한 상태로 몇 달이나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이모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큰 상자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선실에서 타마라는 타미키를 돌보며 숨죽여 지냈다. 얼른 자라서 이모와 나란히 주방에 서서 돈을 버는 날이 오기만을 꿈꾸며 어린 조카를 정성스레 돌보던 타마라는 조금 더 튼튼하게 빨리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식료품 창고에서 몰래 단백질 쉐이크를 훔쳐다가 먹곤 했다. 여느 때와 같이 이모는 일을 하러 가고 타미키가 잠이 든 사이 타마라가 창고로 몰래 숨어들어간 날, 거대한 우주선 어딘가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평소에 들을 수 없던 낯선 소음이었다.

놀란 타마라는 굵직한 창고 환기구에 일단 숨어들었다가 그 소리의 정체를 발견하고 만다. 어느새 창고 문을 부수고 쳐들어온 주인공은 그 동안 타마라가 어떤 소설에서도,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의 존재들이었다. 까마귀와 사람이 반반씩 섞인 듯한 낯선 형상의 이 까마귀 인간들의 손에는 저마다 총이 들려 있었고, 마주치는 선원들은 모조리 쏴버렸다. 문득 비밀 요람에 눕혀놓은 타미키가 떠오른 타마라는 서둘러 이모의 선실로 돌아가고, 아기를 무사히 구출해서 이모가 있는 주방으로 향하지만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타마라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라젤라 이모가, 눈을 뜬 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죽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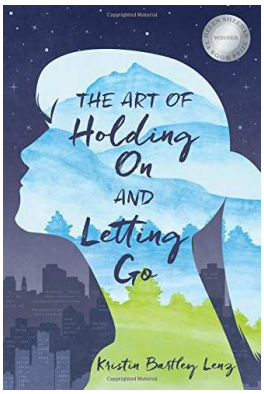
한 순간 세상이 무너진 듯한 충격에 사로 잡힌 타마라는 근처에 있던 긴 칼을 빼 들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또 다시 까마귀 인간 한 무리가 주방으로 쳐들어온다. 가까운 선실에 남아 있던 몇몇 선원들과 이들의 대치가 시작되고, 타마라는 위기에 처하자 환기구에 숨어 있을 때 엿들은 이들의 이상한 언어 중에서 우두머리의 이름인 듯한 단어를 미친 듯이 외쳐댄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던 까마귀 인간들이 타마라를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우주선에 데려간 것이다.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얼떨결에 이 외계인들의 생활에 홀로 내던져진 타마라는 말 한 마디 통하지도 않는 요상한 존재들의 삶이 지독히 폭력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당황한다.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까마귀 인간들의 세계에서 서툴게 적응해 나가던 타마라는 이들이 인류 전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로에 놓인다. 어차피 미래가 불투명해진 인류, 타마라 자신도 별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마지막 인류를 구하기 위해 까마귀 인간들을 배신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습도 언어도 전혀 다른 이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인지, 타마라는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독특한 배경과 인물, 스토리가 매력적으로 마음을 사로 잡는 SF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칼리 블랙(Cally Black)은 영국 훌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호주 멜버른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브렌 맥디블(Bren MacDibble)이라는 필명으로 『How to Bee』(2017년 5월, Allen & Unwin)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 : THE ART OF HOLDING ON AND LETTING GO
가제 : 붙들고 놓을 줄 아는 기술
저자 : Kristin Lenz
출판사: Elephant Rock Productions, Inc.
발행일: 2016년 9월 12일
분량 : 307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15*년 헬렌 쉬한 도서상*(Helen Sheehan Prize)* 수상작**
*** 출간 두 달 만에 *2*쇄 인쇄, 미시건 지역신문 「더 모닝 선」*2016*년 *9~10*월 베스트셀러 *1-2*위**
***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대상을 선호하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 만한 책. 로맨스, 미스터리, 도보여행 이야기도 살짝 가미되어 있다."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위해 나아가는 주인공의 여정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다. 감동적이고 이례적인 성장 소설." – 커커스 리뷰**

엄마아빠가 모두 유명한 산악인인 카라는 어릴 때부터 안락한 집 안보다는 산과 자연 속에서 쉼 없이 도전하는 삶이 익숙한 아이였다. 아빠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 없는 맥스 삼촌까지 네 사람은 세계 곳곳을 돌며 캠핑을 하고, 산을 오르며 살아왔고 카라는 열다섯 살 나이에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산악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또래 친구들처럼 학교를 다니는 대신 홈스쿨링으로 기본적인 학업을 따라가며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인생을 배우던 카라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이 자유로운 생활을 모두 접고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낯설기만 한 환경 속에서, 과연 카라는 뾰족한 바위를 기어오르던 담대함과 용기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에콰도르에서 열린 청소년 암벽등반 대회에 미국 대표로 출전한 카라는 이름이 불리기 직전까지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지만, 막상 차례가 오자 늘 그랬듯 거뜬히 주어진 코스를 완료했다. 맥스 삼촌이 쥐어준 작은 돌 두 개, 긴장될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특효약인 자갈 두 개를 내내 문지르다 인공 암벽 앞에 선 카라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다 끝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저 바로 앞에 놓인 벽과 자신의 본능적인 힘만 믿고 거침없이 정상으로 향했다. 순식간에 코스를 마친 카라와 달리 같은 팀 베키가 속도 조절에 실패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음이 심란해져 경기장 주변을 거닐던 카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함께 에콰도르까지 왔지만 침보라조 산에 탐험을 나선 부모님과 맥스 삼촌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이었다. 그곳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등반대원들이 위기해 처했다는 믿기 힘든 뉴스와 더불어 엄마아빠는 다행히 무사하다는 희소식과 맥스 삼촌이 실종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실수로 삼촌이 실종됐다고 확신해버린 카라의 아빠는 반드시 삼촌을 찾아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혼자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원래는 카라의 경기와 부모님의 탐

험이 끝나면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아빠는 한사코 맥스 삼촌을 찾기 전까진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가족 같은 삼촌이 사라졌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카라는 그 동안 거의 만나거나 연락도 해본 적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진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색 작업에 카라까지 희생될 수는 없다는 부모님의 판단 때문이었지만, 카라에게는 사고 못지 않게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미시건 주, 조용한 교외 마을에서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하는 생활이라니? 하지만 카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회장에 발을 들일 때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숨겨지는 등반대회 코스처럼, 그냥 무작정 맞닥뜨리고 적응하고 배워나가야만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생활은 시작부터 카라에게는 스트레스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다. 광장공포증이 있는 할머니는 사사건건 카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잔소리를 하고, 일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카라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생활 규칙도 너무 엄격했다. 수업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이 딱딱 고정되어 있는 학교 생활도 숨막히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센스 만점 할아버지가 눈치껏 카라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요리조리 돌봐주고, 학교에서 우연히 점심을 같이 먹게 된 케이틀린과 닉이 금세 가까운 친구가 되면서 혼란스럽기만 하던 카라의 새로운 생활도 천천히 안정되어 간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카라의 사물함에 익명의 쪽지가 남겨진다. 학교에 다니면서 카라는 쓸데없이 아이들의 주목을 받을 까봐 자신이 유명한 산악인이라는 사실을 꽁꽁 숨겨왔는데, 카라가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속속들이 다 아는 듯한 사람이 남긴 것이 분명한 쪽지였다. 이름 모를 그 사람은 맥스 삼촌의 실종으로 암벽등반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만 카라를 묘하게 자극하기 시작한다. 그리 싫지 않은 도발에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집 가까이에 있는 암벽 훈련소를 기웃거리기 시작한 카라, 그리고 학교 농구선수 탐과의 풋풋한 첫 사랑까지, 어른의 문턱에 다다른 카라에게 또 한 차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암벽등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마치 산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한 묘사, 역사적인 산악인들이 남긴 명언들이 중간중간 읽는 재미를 더하고,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낯선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카라의 성장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바틀리 렌즈(Kristin Bartley Lenz)는 소설가 겸 아팔라치아 시골 지역과 캘리포니아 베이, 디트로이트 도심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도 활동해 왔다. 아동 작가협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미시건 챕터'의 공동 편집도 맡고 있다.